

##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한 기 순

인천대학교

태 진 미

고려대학교

양 태 연

인천대학교

영재성의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영재성을 최초로 발견하고 키워가는 가정 요인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영재의 가정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가정환경 중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영재 가족의 여가 활동은 영재 개인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거니와 영재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되는 데, 영재가족의 여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가족의 여가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영재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독려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영재가족 지원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가족의 여가활동 유형은 ‘가족지향 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의 여가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동기를 가족 수, 부모 각각의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등의 변인으로 유의수준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영재성 성취를 위해 영재가족의 효율적 여가에 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영재, 영재가족, 영재부모, 여가, 창의인성

---

교신저자: 태진미(jmtae91@hanmail.net)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성 계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부모 요인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문윤희, 2006; 민경해, 2006; 박인호 외, 2006), 부모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을 초월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태진미, 2009). 영재부모 관련 국내의 연구로는 영재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구미숙, 2004; 김동춘, 2003; 양소희, 2007),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김은영, 2003; 김종선, 2008; 김현희, 2004; 송인옥, 2006; 원은실, 오종철, 2008; 이신동, 김종선, 송선희, 2009; 최정남, 2005; 홍의숙,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에 대한 분석연구(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정환명, 2008), 영재학부모와 일반학부모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비교연구(이영순, 2006), 영재학부모의 자질과 양육자로서의 전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도정은, 1999; 문윤희, 2006),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부모를 위한 지침(강충열, 2007; 조석희, 1987, 2002, 2008), 영재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민경해, 2006) 및 과학영재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결과보고서(박인호 외, 2006), 총체적 차원의 영재부모지원의 새로운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태진미, 2009) 등이 있다.

한편 영재의 부모 외에도 영재성 발현과 성취를 위해 영재가 태어나고 자라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 즉, 가정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영재의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고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김정휘, 2001),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윤경희, 2003), 가정환경요인이 영재아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송수지, 2007) 외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재부모 및 양육 관련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재의 가족에 대해 아주 적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소수의 연구물조차도 대체로 가정환경 중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영재의 심리적 가정환경을 다룬 연구물에서는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박혜원, 김윤주, 2009; 서혜영, 2001; 장상수, 2002; 조차미, 2009; 하종덕, 2008)를 보거나, 어머니의 성격유형(문현상, 이안님, 2001),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정동희, 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지지적 양육행동(김수연, 2003) 등 어머니의 특성 중 단편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영재부모의 역할은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시간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Chan, 2005), 최근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가족여가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태진(2000)은 가족 여가 활동은 단순히 참여의 의미를 넘어서 개인 여가에서는 맞볼 수 없는 가정이라는 생활체에 역동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가족 체계 역동성에 작용하여 개인 및 가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간 가족과 여가에 관한 연구들은 흔히 가정학, 경영학, 관광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신의학, 체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한상금, 김순옥, 2008).

한편 영재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재 개인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거니와 영재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재가족의 여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영재아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자 터전이 되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극히 사적인 시간의 활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가족의 여가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첫째,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유형(가족 수, 연령층, 교육수준, 직업군)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동기(가족 수, 연령층, 교육수준, 직업군)에 대해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가족의 여가 활동은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 관계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최길례, 2002; 이문진, 이연주, 김재훈, 2009). 가족의 여가 활동은 개별 구성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삶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제공해 주므로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은 영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영재의 자아실현 및 행복 추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재성을 타고난 것, 남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영재들을 위해 학업 중심, 성취중심의 사회현상이 양산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영재가족에게 있어서 여가는 가족 구성원 저마다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다. 영재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가를 보냄으로써 영재들은 자칫 학문 중심의 활동에 치우치기 쉬운 교육기관 및 일상의 삶에서 더욱 유연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유인(incentive)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생활의 중요 요소로서 그 위치를 잡아가고 있으며 여가에 대한 개념도 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이문진 외, 2009).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여가에 대한 의미나 여가 가치 등이 점차 달라져 왔지만, 근본적으로 여가는 고도의 산업 구조적인 생활로부터 오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긴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여가 활동에의 참여는 삶의 귀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Iso-Ahola(1984)의 연구에 의하면 8~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경험하며 자라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20세 이후의 삶에 심리적인 적응성이 높다고 보고했으며 이정우(1997)도 여가 활동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및 융화 등, 삶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이렇듯 여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여가가 다른 모든

일상의 행동과 관련되며 일의 중단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이자 개인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긴장감을 해소해 주며 자아 성취 내지는 자아실현의 기회와 부족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제공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에 의견을 같이하고 했다. 이렇듯 여가의 다양한 효용성은 영재와 그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Gardner(2008)도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다섯 가지 마인드의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교육 마인드로는 ‘윤리적 마인드’, ‘존중마인드’, ‘창의마인드’, ‘통합마인드’, ‘훈련마인드’가 있다. 직업인이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같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 인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정, 존중할 줄 아는 인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통합 및 융합적 시도와 능력을 갖춘 인재,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 제공을 위해 ‘여가’는 매우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여가의 장점과 여가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즉 산업화 속에서의 사회 기능은 여가 욕구의 증대에 미치지 못하여 때로는 사회에 역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또는 사행심리와 같은 여가의 일탈화가 심각해지고 이러한 여가의 부정적 행태는 때때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공동체적 의미를 아아가기도 한다. 최근 영재들이 지친 심신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게임에 빠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송강영, 안정덕, 2006)에서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는 다소 적지만 남학생의 경우 컴퓨터게임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일보다 주로 주말에 컴퓨터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 남학생의 경우 26%가 넘는 학생들이 3시간 이상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남학생들과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여학생 61%, 민족사관고등학교 여학생 53%가 주말에도 컴퓨터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남학생들과 큰 대조를 보였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컴퓨터게임을 통해 소비하는 시간이 현저히 큰 점을 감안할 때 성별에 따른 여가교육 및 지도의 필요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영재학생들의 평일 여가활동시간이 2시간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여가활동을 주로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남학생 51%, 여학생 40%, 민족사관고등학교 남학생 40%, 여학생 48% 정도가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전혀 계획 없이 여가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성 있는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가족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기를 수 있는 여가교육, 다양한 여가 유형과 선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태진미(2010)도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와 문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학문과 학제간의 융합에 대한 필요와 욕구 증가 및 국내 지적 우수 영재들의 창의적 상상력의 소재의 빈약성을 지적하며 평소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영재와 영재가족이 사적인 시간에 질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적, 감성적 교류를 일으키고 향유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여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Orthner(1975)는 공유활동(joint activity),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 개별활동(individual activity)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둘째, 가족의 안정성과 변화추구라는 욕구에 따라 가족여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Zabriskie와 McCormick(2001)은 ‘중심여가 유형(core family leisure pattern)’과 ‘균형여가유형(balance family leisure pattern)’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중심여가 유형에는 TV시청, 비디오 관람, 게임, 마당이나 놀이터에서 바깥놀이를 하거나 농구하기 등으로 비교적 가정 안에서 평소에 하는 활동을 말한다. 균형여가유형으로는 가족여행, 휴가, 캠핑, 낚시 등 주로 외부에서 행해지는 놀이나 관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 참가 등 중심여가 유형에 비해 덜 일상적이므로 드물게 행하는 비교적

새로운 경험 제공 차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여가 활동의 참여 빈도, 여가 장애, 여가 동기, 시설 만족도 등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지영숙과 이태진(2001)은 교육체험지향활동, 개인적인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 욕구 실현 등의 취미지향활동, 사회친목지향활동, 소일적 성격의 가정지향활동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넷째, 부모간의 상호작용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 동기가 가족 내의 정서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가족의 안정성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첫 번째 분류와 활동의 빈도나 동기 등에 의한 두 번째 분류보다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증진과 가족 내의 정서적 유대감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여가 개념을 추구하므로 이와 근접한 네 번째 분류의 대표적인 예로서 최길례(2002)의 분류에 기반 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최길례(2002)는 여가의 유형을 신체적 활동, 가정지향 활동, 자기개발 활동, 시간소일 활동, 사교 활동, 놀이오락 활동 등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그 하위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여가활동’은 조깅, 체조,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미용체조, 에어로빅댄스, 탁구, 배드민턴, 야구, 소프트볼, 하이킹, 스케이팅, 볼링, 축구, 농구, 배구, 캠핑, 등산, 스키 등 신체를 주로 사용하는 여가활동을 뜻한다. ‘가정지향 여가활동’은 가족과의 대화 및 자녀와 놀아주기, 가족과 야외 나들이, 가족여행, 주말농장, 집안 가꾸기, 가족과의 외식, 자녀와 함께 놀이터 및 공원가기 등의 가족 구성원이 큰 부담 없이 일상에서 서로 간에 함께하는 방식의 여가를 말한다. ‘자기 개발 여가 활동’은 강습이나 취미활동, 독서, 전시회, 전람회 관람 및 영화감상, 음악 감상, 찜질방 등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행하는 유형의 여가이다. ‘시간소일’ 활동은 수면(낮잠), 휴식, 이웃과의 환담, 산책, 사색, TV시청 및 라디오청취, 기타 소일 활동 등 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여유를 보내는 활동들을 가리킨다. ‘사교활동’은 친지나 친구 방문, 이성교제, 카페출입, 동창회, 계모임, 종교 및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교활동을 말한다. ‘놀이 오락 활동 여가’는 바둑이나 화투, 카드,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 만화보기 등 여러 가지의 오락 활동 등을 의미한다.

종합해볼 때 가족은 사회의 가장 으뜸이 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한 여가 집단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의 여가 활동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 정서적 유대감, 응집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여가 활동 참여와 가족, 여가 만족, 생활 만족 등의 연구가 체육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가족의 여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가족의 여가 참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봄으로써 추후 영재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수는 총 30가족이다. 연구에 참여한 영재가족의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영재자녀의 나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3~4학년(76.7%)이었고, 1~2학년이 13.3%, 5~6학년이 10%였다. 자녀의 성비를 살펴보면 7:3(남:여)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은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16.7%, 기타 기관(단위학교 및 기타 영재교육기관)이 20%이다. 영재아버지의 연령대는 36~45세가 69%로 가장 많았으며, 46~50세가 24.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영재어머니의 연령대는 36~40세가 60%, 41~45세가 23.3%였다. 영재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2세 정도 되었고 영재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9세로 아버지의 연령이 평균 3세 정도 많았다. 영재가족의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 대졸(아버지: 69%, 어머니: 70%)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로 판별된 아동의 어머니 360명에 관한 Groth(1975)의 연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학사학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것과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2003), 이정규, 김현철(2005), 박춘성, 이정규(2009) 등의 국내외 연구에서 모두 영재들의 가정환경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부모의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표

구 분		빈도수	퍼센트 (%)	구 분		빈도수	퍼센트 (%)			
자녀 나이	1~2학년	4	13.3	부 교육 수준	대학원졸	4	13.8			
	3~4학년	23	76.7		대졸	20	69.0			
	5~6학년	3	10.0		고졸	5	17.2			
자녀 성별	남	21	70.0	모 교육 수준	대학원졸	2	6.7			
	여	9	30.0		대졸	21	70.0			
교육 기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5	16.7	부 직업	사무 종사자	7	24.1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19	63.3		서비스 종사자	4	13.8			
					판매 종사자	1	3.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	6.9			
	기타	6	20.0		기술공 및 준 전문가	4	24.1			
전문가				7	13.8					
가족수				모 직업	기타	4				
					2명	1	3.3	사무 종사자	1	3.3
					3명	3	10.0	서비스 종사자	2	6.7
					4명	19	63.3	판매 종사자	1	3.3
					5명 이상	7	23.3	전문가	5	16.7
아버지 연령				주부	기타	1	3.3			
					31~35세	1	3.4	31~35세	3	10.0
					36~40세	10	34.5	36~40세	18	60.0
					41~45세	10	34.5	41~45세	7	23.3
					46~50세	7	24.1	46~50세	2	6.7
51~55세	1	3.4								

학력이 높았다는 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영재아버지의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가 각각 24.1%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66.7%가 주부였으며, 전문가가 16.7%였다. 영재가족은 4인 가정인 경우가 많았고(63.3%), 5명 이상인 경우도 23.3%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 영재 학생 아버지는 대졸이 69%, 대학원졸이 13.8%, 고졸이 17.2%인데, 이순복, 전귀연(2006)의 연구에서 영재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62.5%, 대학원졸

28.1%, 전문대 고졸 동이 9.4%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볼 때 영재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큰 차이는 없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약간 낮은 수준의 학력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대졸 70%, 대학원졸 6.7%, 고졸 23.3%로 전반적으로 높지만 이순복, 전귀연(2006)의 유아영재가족 연구에서 대졸 72.9%, 대학원졸 10.4%, 전문대 또는 고졸 16.7%인 것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대상 영재 어머니의 학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다소 낮은 현상은 이순복, 전귀연(2006)의 연구가 유아영재부모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의 학력이 높아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2. 조사 도구

### 가.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7개 문항, 여가 활동 유형에 관한 항목 1개 문항, 여가 동기에 관한 항목 32개 문항 등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지표,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구성 지표	내 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수 부모의 연령·교육 수준·직업 (부·모 각각)	7
여가 활동 유형	신체적 활동 가정 지향 활동 자기 개발 활동 시간 소일 활동 사교 활동 놀이 오락 활동	1
여가 활동 동기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32
	계	40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배경 변인으로 설정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가족 수, 부모 각각의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등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통계청(2000)에서 제시한 직업 분류에 의하여 12가지 직업군에 대하여 기타와 군인은 제외하고, 10가지 직업군에 대하여 단순노무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의 직업군을 1군으로 구분하고,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업군을 2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문가, 국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급을 3군으로 분류하였다.

### 2) 여가 활동 유형

독립 변인 중의 하나인 여가 활동 유형을 묻는 질문으로는 참여 빈도를 근거로 하여 여가 활동을 분류함으로써 객관성과 항목 구성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길례(2002)가 사용한 여가 활동 유형을 사용하였다. 여가 활동 유형은 신체적 여가 활동, 가정 지향적 여가 활동, 자기 개발적 여가 활동, 시간 소일적 여가 활동, 사교적 여가 활동, 놀이 오락적 여가 활동 등의 6개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 3) 여가 활동 동기

여가 활동 동기 요인의 측정은 Beard와 Ragheb(1983)의 검사지를 원형중(1998)이 번안하고 최길례(2002)가 신뢰도 검증을 실시(Cronbach's  $\alpha=.819\sim.882$ )한 여가 활동 동기 척도((Leisure Motivation Scale, LMS)를 사용하였다. 여가 활동 동기 척도는 지적 동기 8개 문항, 사회적 동기 8개 문항, 유능적 동기 8개 문항, 휴식적 동기 8개 문항 등, 4개의 세부 항목별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정도의 측정은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최하 1점으로부터 최고 5점까지 부여하였다.

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검사 도구의 신뢰 정도(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질문지 별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 활동 동기가 영역별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819~.882 범위에 속함으로써 검사 문항의 신뢰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가 활동 동기의 신뢰도

구분		Alpha 계수
	동기 전체	.915
하위 영역별 동기	지적 동기	.846
	사회적 동기	.819
	유능적 동기	.859
	휴식적 동기	.882

3. 자료 처리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유형과 여가 활동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여가 활동 유형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재의 가족 수, 영재부모의 연령층, 교육수준, 직업군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chi^2$ 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재의 가족 수, 영재부모의 연령층, 교육수준, 직업군에 따른 여가활동 동기와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비모수통계 분석(Kruskal-Wallis)을 하였다. 모든 통계 검증은 SPSS-WIN 12.0 윈도우 버전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5$ 에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유형

가. 영재의 가족 수와 여가활동 유형과의 관계

<표 4> 가족 수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가족 수				전체
	2명	3명	4명	5명 이상	
신체적여가	0 .0%	0 .0%	5 26.3%	1 14.3%	6 20.0%
가정지향	0 .0%	1 33.3%	7 36.8%	3 42.9%	11 36.7%
자기개발	0 .0%	2 66.7%	3 15.8%	3 42.9%	8 26.7%
시간, 소일	1 100.0%	0 .0%	1 5.3%	0 .0%	2 6.7%
사교활동	0 .0%	0 .0%	1 5.3%	0 .0%	1 3.3%
놀이, 오락	0 .0%	0 .0%	2 10.5%	0 .0%	2 6.7%
전체	1 100.0%	3 100.0%	19 100.0%	7 100.0%	30 100.0%

$\chi^2 = 20.87(df=15, p=.141)$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가족 수(3명, 4명, 5명의 가족)와 관계없이 모두 가정지향, 자기개발 여가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영재가족 여가 관련 선행연구는 부재하여 일반대학생 가정을 조사했던 최길례(2002)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는데, 그의 결과에서는 가족 수에 따라 여가 활동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의 여가활동 실태를 조사했던 이전평(2007)의 결과에서도 일반가정의 주종의 여가활동으로 TV시청(30.3%), 컴퓨터(26.7%), 친구와 놀기(11.3%), 독서와 스포츠 운동이 각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컴퓨터(25.5%), 친구들과 놀기(19.3%), TV(17.5%), 게임(8.6%), 스포츠

운동(7.1%) 등의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TV 시청은 ‘시간 소일활동’에, 컴퓨터는 ‘놀이 오락 여가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 초등생의 가정은 시간소일과 놀이오락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현상을 보인다. 더불어 친구들과 놀기 등도 평일 11.3%, 주말 19.3% 등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노는 활동은 사교활동 여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초등생의 가정이 TV나 컴퓨터 등의 시간소일과 놀이 오락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현상이 많은 것에 비해 영재가족은 가족 숫자와 관계없이 가정지향활동(가족과의 대화 및 자녀와 놀아주기, 가족과 야외 나들이, 가족여행, 주말농장, 집안 가꾸기, 가족과의 외식, 자녀와 함께 놀이터 및 공원가기 등)과 자기개발 활동(강습이나 취미활동, 독서, 전시회, 전람회 관람 및 영화감상, 음악 감상, 짬질방 등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행하는 유형의 여가) 여가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체여가활동 및 사교활동 형태의 여가는 많이 하고 있지 않았다.

나. 영재부모의 연령층과 여가 활동 유형과의 관계

<표 5> 영재 부모의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아버지 연령			전체	어머니 연령		전체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신체적 여가	1 14.3%	5 25.0%	0 .0%	6 20.7%	5 26.3%	1 9.1%	6 20.0%
가정지향	3 42.9%	7 35.0%	1 50.0%	11 37.9%	7 36.8%	4 36.4%	11 36.7%
자기개발	1 14.3%	6 30.0%	1 50.0%	8 27.6%	4 21.1%	4 36.4%	8 26.7%
시간, 소일	1 14.3%	0 .0%	0 .0%	1 3.4%	2 10.5%	0 .0%	2 6.7%
사교활동	0 .0%	1 5.0%	0 .0%	1 3.4%	0 .0%	1 9.1%	1 3.3%
놀이, 오락	1 14.3%	1 5.0%	0 .0%	2 6.9%	1 5.3%	1 9.1%	2 6.7%
전체	7 100.0%	20 100.0%	2 100.0%	29 100.0%	19 100.0%	11 100.0%	30 100.0%
	$\chi^2=6.14 (df=10, p=.803)$				$\chi^2=4.69 (df=5, p=.456)$		

30대의 아버지들은 가정지향 여가(42.9%), 신체적여가(14.3%), 자기개발(14.3%), 시간소일(14.3%), 놀이오락(14.3%)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40대의 아버지들은 가정지향(35.0%), 신체적 여가(25.0%), 자기개발(30.0%), 사교활동과 놀이오락 등이 각각 5.0%로 조사되었다. 한편 영재 어머니는 30대의 어머니는 가정지향(36.8%), 신체적 여가(26.3%), 자기개발(21.1%), 시간소일(10.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40대는 자기개발(36.4%), 가정지향(36.4%), 신체적여가, 사교활동, 놀이오락 등이 각각 9.1%로 조사되었다. 30, 40대 어머니 모두 가정지향, 자기개발 여가가 우세하지만 30대의 경우 가정지향 여가와 신체적 여가가 자기개발 여가에 비해 더 우세하고 40대의 경우 자기개발과 가정지향 여가가 신체적 여가에 비해 훨씬 우세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석해볼 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인 30대의 부모는 40대에 비해 보다 ‘가정지향활동’ 즉 자녀와 대화, 놀아주기, 가족 여행이나 나들이 활동 및 ‘신체적 여가활동’ 즉 조깅,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의 활동에 주력하는 현상이 많다. 그러나 30대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40대의 어머니들은 가정지향활동과 더불어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 즉 독서, 음악 감상, 취미활동 등에 비중을 늘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최길례(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아버지의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 활동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40대의 일반 어머니는 가장 많은 32.8%가 시간 소일 활동을 선호하는데 이어서 21.5%가 신체적 활동, 17%가 가정지향활동, 11.3%가 자기개발활동, 12.8%가 사교활동, 4.6%가 놀이오락 활동 순으로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 어머니의 경우는 34.8%가 신체적 활동, 26.7%가 시간소일활동, 10.4%가 가정지향활동, 10.4%가 사교활동, 9.6%가 자기개발활동, 8.1%가 놀이오락 활동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영재부모의 경우 연령대와 관계없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정지향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연령은 다르지만 동일 연령대인 40대의 일반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여가와 확연히 다르게 40대의 영재 어머니는 자기개발과 가정지향 활동에 편중된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일반 대학생 가족의 여가를 연구했던 최길례(2002), 일반 청소년(중 2, 3학년) 가족의 여가와 가족건강성에 대해 연구했던 이민아, 김순옥(2007)의 연구, 초등생 자녀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계층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를 했던 이진평(2007)의 연구 모두 일반 부모들은 신체적 여가, 놀이오락, 사교활동, 가정지향 여가, 자기개발, 시간소일 등의 다양한 여가들이 폭넓게 분포된 반면에 영재부모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교활동 등의 사회친화적 활동보다는 가정지향활동 또는 자기개발 활동의 여가 즉 가족중심 및 개인지향적 차원의 여가에 주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 영재부모의 교육 수준과 여가 활동 유형과의 관계

연구결과 영재 아버지의 각기 다른 교육수준(대학원졸, 대학졸, 고졸)에도 불구하고 가정지향, 자기개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 대졸의 경우 고졸보다도 현저히 높은 가정지향 여가활동 선호도를 보이고 있

<표 6> 영재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부 교육수준			전체	모 교육수준			전체
	대학원졸	대졸	고졸		대학원졸	대졸	고졸	
신체적 여가	0 .0%	5 25.0%	1 20.0%	6 20.7%	0 .0%	3 14.3%	3 42.9%	6 20.0%
가정지향	2 50.0%	8 40.0%	1 20.0%	11 37.9%	0 .0%	10 47.6%	1 14.3%	11 36.7%
자기개발	2 50.0%	4 20.0%	2 40.0%	8 27.6%	1 50.0%	5 23.8%	2 28.6%	8 26.7%
시간, 소일	0 .0%	1 5.0%	0 .0%	1 3.4%	1 50.0%	1 4.8%	0 .0%	2 6.7%
사교활동	0 .0%	1 5.0%	0 .0%	1 3.4%	0 .0%	0 .0%	1 14.3%	1 3.3%
놀이, 오락	0 .0%	1 5.0%	1 20.0%	2 6.9%	0 .0%	2 9.5%	0 .0%	2 6.7%
전체	4 100.0%	20 100.0%	5 100.0%	29 100.0%	2 100.0%	21 100.0%	7 100.0%	30 100.0%
	$\chi^2=5.56$ (df=10, p=0.851)				$\chi^2=15.79$ (df=10, p=0.106)			



다. 영재 어머니의 경우도 고졸 어머니가 신체적 여가 활동을 선호(42.9%) 하는 현상을 제외하고 대졸자와 고졸 모두 가정지향, 자기개발 여가를 선호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가치체계는 학습, 수행, 일반적 형태의 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Winner(2005)의 연구와 동일하게 평소 부모가 가정지향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영재부모는 자연스럽게 영재자녀의 언어, 사고, 풍부한 경험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 공통적으로 영재교육 대상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단이고 이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을 훨씬 크게 만든다고 보고되었던 것(Makenzie, 1986)과 일상에서 영재부모의 지속적인 성취강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평소 취미 및 기타 여가 활동 공유, 토론 등을 지속함으로써 우수한 잠재력을 영재성으로 가시화하고 형성시키는데 기여한다(Bloom, 1985)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대상 영재가족들이 일반 가족들에 비해서 가족 유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가정지향 여가가 영재들의 언어, 사고, 경험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라. 영재부모의 직업군과 여가 활동 유형과의 관계

본 연구대상 영재 아버지의 경우 2군 즉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3군 즉 전문가, 고위 임직원, 관리자급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2순위로 높았다(표 1참조). 영재어머니의 경우 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이며 2순위로 3군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많았다. 초 중학생 창의성 영재의 지적, 정의적, 가정 환경적 특성에 대해 분석 연구했던 김명철(2008)의 선행연구에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창의성 영재와 평재 간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는 ‘모직업’ 요인으로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창의성 영재의 창의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모직업과의 관계가 적으나 평재의 창의성은 모직업과의 관계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영재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회, 경제적 지위환경이 우세한 경우뿐만 아니라 3군과 2군의 직업을 가진 영재의 아버지와 전업주부, 3군, 2군의 영재의 어머니조차 가정지향

<표 7> 영재 부모의 직업군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부의 직업군				전체	모의 직업군				전체
	1군	2군	3군	기타		1군	2군	3군	주부	
신체적	2	3	0	1	6	1	0	0	5	6
여가	66.7%	20.0%	.0%	25.0%	20.7%	100.0%	.0%	.0%	23.8%	20.0%
가정	0	5	4	2	11	0	3	2	6	11
지향	.0%	33.3%	57.1%	50.0%	37.9%	.0%	100.0%	40.0%	28.6%	36.7%
자기	1	5	2	0	8	0	0	2	6	8
개발	33.3%	33.3%	28.6%	.0%	27.6%	.0%	.0%	40.0%	28.6%	26.7%
시간,	0	0	0	1	1	0	0	1	1	2
소일	.0%	.0%	.0%	25.0%	3.4%	.0%	.0%	20.0%	4.8%	6.7%
사교	0	1	1	0	2	0	0	0	1	1
활동	.0%	6.7%	14.3%	.0%	6.9%	.0%	.0%	.0%	4.8%	3.3%
놀이,	0	1	1	0	2	0	0	0	2	2
오락	.0%	6.7%	16.7%	.0%	7.1%	.0%	.0%	.0%	9.5%	6.7%
	3	15	7	4	29	1	3	5	21	3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6.15 (df=15, p=0.372)$					$\chi^2=13.42 (df=15, p=0.570)$					

여가 및 자기개발 활동의 여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중심의 가정지향 여가를 추구하는 영재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2.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동기

### 가. 가족 수에 따른 여가 활동 동기의 차이

<표 8> 가족 수에 따른 여가 활동 동기 검정 통계량

	$\chi^2$	df	p
지적 동기	3.61	3	.306
사회적 동기	3.07	3	.381
유능적 동기	3.75	3	.290
휴식 동기	4.29	3	.232

가족 수에 따른 영재가족의 여가활동 동기의 분석 결과(Kruskal-Walli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영재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 활동 동기 검정 통계량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chi^2$	df	p	$\chi^2$	df	p
지적 동기	.87	2	.648	.97	2	.615
사회적 동기	.53	2	.766	1.18	2	.554
유능적 동기	2.50	2	.287	.06	2	.97
휴식 동기	.78	2	.676	.58	2	.748

영재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 활동 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재부모들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일반가정의 부모에 비해 교육수준이 훨씬 높고 어린 시절 영재자녀의 평소 일상에서 ‘성취’를 강조(Bloom, 1985)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대상 영재부모들은 가족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 여가선택의 동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10> 영재 부모 직업군에 따른 여가 활동 동기 검정 통계량

	부의 직업군			모의 직업군		
	$\chi^2$	df	p	$\chi^2$	df	p
지적 동기	1.97	3	.583	4.28	3	.233
사회적 동기	.68	3	.879	1.72	3	.634
유능적 동기	4.40	3	.222	1.50	3	.683
휴식 동기	.70	3	.875	3.09	3	.379

영재부모의 직업군에 따른 여가 활동의 동기 하위 영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의 직업군과 여가활동의 동기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ottfried, Fleming과 Godfried(1998)이 가정에서의 인지적 자극 즉, 작용환경이 영재들의 학업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직업군과 같은 지위환경은 영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고한 것과 관련해 본 연구도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영재들의 작용환경 즉, 평소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비해 부모의 직업군과 같은 지위환경이 영재성의 일상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가족은 최초의 사회적 집단이자 가장 으뜸이 되는 기본 단위이며 중요한 여가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영재 가족의 여가 활동은 영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의 심리적 만족, 정서적 유대감, 응집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여가 활동 참여와 가족, 여가 만족, 생활 만족 등의 연구가 체육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 가족의 여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바가 없다.

연구결과 첫째,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유형’은 ‘일반가족의 여가 활동 유형’과 분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배경 변인으로 설정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가족 수, 부모 각각의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등이었는데,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선행연구와 비교해 영재의 가족 수, 부모 각각의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영재가족의 여가활동 유형은 ‘가족 지향 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의 여가에 두드러지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영재가족의 여가 활동 동기를 가족 수, 부모 각각의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등의 변인으로 비모수통계(Kruskal-Wallis)를 실시하고 유의수준  $p < .05$ 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영재가족의 수,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이 여가활동의 동기와 의미 있는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학습자의 교육적 성취를 결정하는 주요 환경으로 가정과 학교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환경은 직접적이던, 촉매로 작용하던 관계없이 학습자의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Bradley & Caldwell, 1988). 본 연구에서도 박춘성, 이정규(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재의 가정환경의 작용환경, 지위환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하여 영재학급 입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평소 부모가 가정지향 여가활동을 통해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토론하고 취미 및 기타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영재성 발현과 형성을 위해 매우 크게 기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발달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 그 이후에는 가정환경의 영향이 점차로 줄어들고 가정 이외의 역할모델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 및 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재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가정지향적인 여가’의 양상을 ‘사회지향적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한다. 최초의 사회집단인 가정에서 가정 지향적이고 자기개발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영재자녀는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족밀착형 즉 가족친화적인 여가활동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은 부모의 삶과 일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된다. 물론 가족지향적, 자기개발에 편중된 영재부모의 여가의 양상은 영재자녀와의 밀착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영재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타인과의 교류 및 사회 지향적 관심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는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개인지향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성향이 연령이 더해가며 사회친화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착되는 경우에는 또래나 타인, 사회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현실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영재들에게서 사회성발달의 부진함이 발견되는 주된 원인이 사실상 가정에서의 생활양식패턴이 가정지향적,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의 고착 현상에서 비롯되었

을 수도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과 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영재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가정지향적인 여가’의 양상을 ‘사회지향적인 방향’으로 점차로 전환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영재성의 성취는 많은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영재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지식의 생산자 양성이요, 다양한 분야의 진정한 리더를 키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문이나 지식의 정형화된 틀에서 나아가 복잡한 현실과 사회,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도록 창의인성을 겸비한 영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가족들에게만 밀착되고 응집된 발달은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전망하기 어렵다. 또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현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가족 이외의 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실제의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영재의 부모와 가족들 중에는 영재자녀를 양육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의 리더십을 어려서부터 훈육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자녀가 인류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영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하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다. 영재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꽃피워 인류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선도할 진정한 리더를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창의인재로서의 성장을 위해 더 이상 영재들의 인성교육 및 윤리, 사회성 발달의 책무성을 영재부모에게만 두어서는 안 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영재와 영재부모들이 행복하고 유익한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를 연구했던 송강영, 안정덕(2006)의 연구에서도 보면 상당수의 영재들이 여가에 대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보내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영재 남학생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컴퓨터 게임으로 보내기도 한다. 전인적 성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문제, 학제간의 융합의 시도가 일어나며 창의적 소

재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영재를 위한 여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성별, 분야, 연령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의 계획과 교육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영재의 가족들은 가정지향 여가 및 자기개발 여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여가 및 사교활동 등의 여가는 현저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영재와 영재가족이 6개 영역의 다양한 여가를 고루 향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재들의 경우 비동시적 성장 및 신체적 불균형 현상 등으로 인해 보다 신체활동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가족 구성원 외에도 타인들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관계 맺는 능력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 사교적 활동의 여가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언젠가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보내는 사적인 생활을 관찰해보면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던 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자칫 사적인 시간의 가치를 망각할 수도 있다. 작아 보이는 일상의 사적인 시간이 실제로는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좌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영재성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발달 즉, 성장의 개념이므로 영재성이 자라고 꽃피우기까지 영재는 인생에서 수많은 갈등과 변화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강렬한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기 쉬운 영재들의 성장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극한 상황도 여유롭게 극복하기 위해 영재들에게 평소의 여가 및 삶의 여유를 향유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재교육 및 영재가족의 역할은 영재성의 ‘형성’을 돕는 것에만 주력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영재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그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영재가족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적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영재자녀를 둔 30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폭넓게 적용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영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 고등기 및 대학 이후

의 영재가족의 여가 특성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보다 많은 연구대상, 다양한 지역과 분야별, 발달 단계별 영재가족의 여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충열 (2007).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가정교육 10훈. **아동교육**, 16(1), 31-48.
- 구미숙 (2004).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동춘 (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어머니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명철 (2008). **초 중학생 창의성 영재의 지적, 정의적, 가정 환경적 특성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3), 671-681.
- 김수연 (2003).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은영 (2003). **유아의 영재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정휘 (2001).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선 (2008).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김현희 (2004).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초등영재아 부모의 요구분석. **문화콘텐츠연구**, 9(2), 99-122.
- 도정은 (1999).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선택에 관한 부모의 정보탐색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문윤희 (2006).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비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문현상, 이안남 (2001).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창의성과의 관계. **생활지도연구**, 21(1), 77-94.
- 민경혜 (2006). **영재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박인호, 한기순, 권남오, 양태연, 이운학, 정태봉 (2006). **학부모 과학영재교육센터**. 한



- 국과학재단.
- 박춘성, 이정규 (2008). 영재아와 일반아간 학교 및 가정 부적응 유형차이. **영재와 영재교육**, 7(2), 121-139.
- 박춘성, 이정규 (2009). 영재학생의 가정환경 영향력 분석: 초등영재학급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8(1), 131-142.
- 박혜원, 김윤주 (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특성. **영재교육연구**, 19(3), 433-456.
- 서혜영 (2001). **초등영재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송강영, 안정덕 (2006).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민족사관고 학생들의 여가활동특성 및 생활만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2), 134-140.
- 송수지 (2007). 가정환경요인이 영재아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9), 1-13.
- 송인옥 (2006).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양소희 (2007). **영재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 및 영재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원은실, 오종철 (2008). 학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영재교육연구**, 18(2), 265-292.
- 유형근 (2009). 미성취 영재의 상담요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1), 113-139.
- 윤경희 (2003).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331-353.
- 윤재성 (2004). **초등학생의 여가활동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이문진, 이연주, 김재훈 (2009).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3(2), 5-13.
- 이민아, 김순옥 (2007).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생활과학**, 10호, 1-17.
- 이순복, 전귀연 (2006). 부모 및 가족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4), 283-310.
- 이신동, 김종선, 송선희 (2009).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1(1), 79-102.
- 이영순 (2006). **영재학부모와 일반학부모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비교**. 석사

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이전평 (2007). **사회계층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규, 김현철 (2005). 우리나라의 영재의 개인 및 가정환경적 배경원인 연구. **교육방법연구**, 17(2), 239-259.

이정우 (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와 여가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 2(97.11), 79-95.

이태진 (2000).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체계 역동성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193-205.

장상수 (2002).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창의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정동희 (2003).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과 유아의 창의성 및 인지처리양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정환명 (2008).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 학원대학교.

조석희 (1987). 취학 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개발**, 50(87.10), 60-64.

조석희 (2002). **내 아이 타고난 영재성 100% 키워주기**. 서울: 조선일보사.

조석희 (2008). **0515 공부클리닉**. 서울: 왕의서재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 (2003). **영재성의 발굴 및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2003-28.

조석희, 이미순, 황동주, 이현주 (2005). **소외계층 영재의 발굴 및 교육방안: 소외계층 영재의 가정 및 개인특성분석**. 한국교육개발원. CR 2005-64.

조차미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른 형제 영재의 수학적 성향 비교: 사례연구. **영재교육연구**, 19(1), 47-67.

지영숙, 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유형: 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최길례 (2002).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최길례 (2003).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3), 175-184.

최정남 (2005). **영재유아 아버지의 교사로서의 부모태도와 지능발달에 대한 인식조사**

-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태진미 (2009). 영재부모지원의 새로운 접근. **영재교육연구**, 19(2), 303-332.
- 태진미 (2010). 음악과 영재와의 만남. **경기과학고 영재교육담당교원 직무연수 기초 과정 2기 자료집**. 경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
- 통계청 (2000).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년**. 통계청.
- 표영희 (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종덕 (2008). 영재아 부모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8(2), 293-311.
- 한상금, 김순옥 (2008). 가족여가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 35-61.
- 홍의숙 (2003). **영재의 특성 및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Bloom, B.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e Books.
- Bradley, R. H., & Caldwell, E. A. (1988). Home environment and school performance: A ten-year follow-up and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environmental action. *Child Development*, 59(4), 852-867.
- Chan, D. W. (2005). Family Environment and Talent Development of Chinese Gifted Students in Hong Kong. *Gifted Child Quarterly*, 49(3).
- Gardner, H. (2008). **미래 마인드**[김한영 역], 서울 : 재인(원본출간년도: 2007).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dfried, A. W. (1998). Role of cognitively stimulating home environment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9, 1448-1460.
- Groth, N. J. (1975). Difference in parental environment needed for degree achievement for gifted men and women. *Gifted Child Quarterly*, 19, 217-222.
- Iso-Ahola, S. E., & Wessinger, E. (1984). Leisure and well-being: Is there connection? *Parks and Recreation*, 19(June), 40-44.
- Makenzie, J. A. (1986). The influence of identification practices, race and SES on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0(2), 93-95.
- Orthner, D. 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91-102.
- Winner, E. (2005). **내 아이도 영재다**[송인섭 역], 서울: 학지사(원본출간년도: 1996).
- Zabriskie, R. B., & McCormick, B. P. (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281-289.

= Abstract =

## Research on the Recreational Activity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Jinmi Tae**

*Korea University*

**Taeyeon Yang**

*University of Incheon*

Among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talent of gifted children, the family factor that first finds and cultivates the talent of gifted children is quite important. The researches on the family of gifted children are mostly concentrated on physical environment out of the home environment, neglecting psychological environment. Although the recreational activity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considerably contributes to the emotional, intellectual and soci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themselves and to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the family members, the recreation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has not yet been studied. Thu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basic materials for seeking the direction to educate parents and to support family with gifted children in order to encourage synergy effect in emotional and social growth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by surveying the property of recreation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The result of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tends to be remarkably biased to 'family-oriented activity' and 'self-development activity.' Second, verifying the significant level of motive for recreational activity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at the variables such as number of family members, parents' age, parents' edu-

cation level, parents' occupation, etc, it was concluded tha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education and support for efficient recreation of family with gifted children is necessary to achieve healthy talent of gifted children.

**Key Words:** Gifted children, Family with gifted children, Gifted children's parents, Recreation, Creative humanity

1차 원고접수: 2010년 3월 18일
수정원고접수: 2010년 4월 17일
최종게재결정: 2010년 4월 20일